

“경제 한파 온정으로 녹였다”

구두수선공 · 전역 앞둔 장병 · 외국인유학생 등 성금 줄 이어

제주모금회 ‘2009 나눔 캠페인’ 모금 목표액 초과 달성

경제 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사랑의 온정은 더 달아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두달 동안 펼친 ‘희망 2009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목표액 14억2300만원을 넘어선 14억9490만원(1월 30일 현재)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면서 사랑의 온도탑은 105.1도를 기록했다.

경기 불황에도 제주도민들은 자신보다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2평 남짓한 이동식 건물에서 구두수선을 하는 박태도씨(66)는 한푼 두푼 모은 20만원을 기탁했다.

박씨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돈을 모은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모아 모금회에 전달했다.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구두수선 일을 하고 있는 박씨는 “아직까지 내 몸이 이렇게 멀쩡한데 뭐 하러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느냐”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기부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군 복무 기간 모은 월급 전

액을 성금으로 기탁한 군인도 있었다.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를 하는 박태준 병장(22)은 전역을 앞두고 2년간 받은 월급 240여만원을 선뜻 내놓았다.

박 병장은 태풍 ‘나리’가 제주도에 큰 피해를 남긴 2007년에는 군대에서 용돈을 아껴 수재의연금 20만원을 내기도 했다.

박 병장은 “전역 후에도 새로운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다시 기탁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사랑 나눔에 동참했다. 제주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모임(회장 아널 쿠마프)은 송년회에서 150명이 1000원씩을 모은 15만원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성금 뿐만 아니라 물품 기탁도 줄을 이었다.

문승준 아라야ENC 대표이사는 사육 개관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기증받은 쌀 300포(20kg 들이)를, 제주불교사회봉사회는 떡국 떡 2톤(10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금액인 1억원을 각각 전달했다.



△제주시 신제주로터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가리키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들은 또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성과급 2080만원을 성금으로 내놓았다.

제주모금회 관계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도민들이 자발적인 성

금모금에 참여해 줘 어느 해보다도 뜻있는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적재적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하는 한편 모든 기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도입

보건복지가족부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도입했다.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이 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20만명 이상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노인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긴급자금 보유 한도액을 노인 단독가구 720만원, 노인 부부가구 1200만원에서 가구(노인 단독, 노인 부부) 구분 없이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9급 공무원 저소득층 의무선발
시설·탐방·동계·주중·한·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 소식마당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푸드뱅크 정책토론회



謹賀新年

주는 福 받는기쁨

고객님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객님의 사랑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2009년 己丑年새해,
고객님과 가정에 기쁜 소식 가득하며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향토기업 ———
 **제주은행**

저소득층에서 9급 공무원 1% 선발

‘공무원임용시험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구분모집방식 적용...24명 채용 예정

올해부터 9급 공무원 공채 시 1% 이상을 저소득층 가운데 선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에서 선발인원의 1%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000원) 이하인 사람으로, 약 154만명이 해당된다.

당장 오는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다. 채용방식은 채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1% 이상의 채용인원을 두고 저소득층끼리 경쟁하는 구분모집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9급 공채시험(4월 11일 시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공고 때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통해 이달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9급 공채 선발인원 2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행정(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40여명의 저소득층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시험에 합격한 뒤 임용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기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험합격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조기 임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재활전문센터 조감도.

제주재활전문센터 이달 착공

270억 투입...옛서귀여중 부지에 신축

전문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사업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제주재활전문센터 신축공사를 이달에 착공기로 했다.

제주도는 국비 135억원과 지방비 135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서귀동 옛 서귀여자중학교 부지 5900여㎡에 첨단 의료장비 등을 갖춘 재활치료실과 특수치료실, 입원실 등을 마련해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한다. 2011년 문을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재활전문센터에 우

수 의료진과 전문 경영인을 확보해 기존 병원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지방재활병원의 경영실태와 운영사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상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오감을 자극해 치료할 수 있는 치유환경을 조성해 서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재활전문센터는 지난해 4월 공모를 거쳐 제주의 으뜸과 지붕 등 제주의 멋을 살려 현대적 감각으로 설계됐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자료 개발

도교육청, 중국어·베트남어판 한글 교육자료 등 발간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자료(사진)가 개발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학교생활 안내자료와 한글 교육자료를 개발, 도내 학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도내 다문화 가정(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등)의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자료인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 중국어·베트남어 1종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내 친구 한국어1’ 중국어판과 베트남어판 2종 등 3종이다.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인성지도 방법 등이 우리말과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편집돼 실렸다.

‘내 친구 한국어1’은 한글 초급 학습지용으로,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따로 제작돼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학부모들이 익숙한 자국의 언어를 선택, 학습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책자에는 한글을 배우면서 제주문화를 엿볼 수 있도록 빕떡, 설문대 할망 이야기, 허벅, 정방폭포, 수월봉 이야기, 제주정낭, 제주 해녀, 만장굴, 용연다리 등의 내용을 예시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으로 ‘내 친구 한국어2’ 중국어·베트남어판을 발간하는 한편 제주 전통문화 이해 자료인 ‘한눈에 알아보는 제주의 문화’를 한국어·영어·일본어 합본으로 펴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다문화 가정 교육자료로 ▲희망으로 여는 학교생활(일본어·영어판) ▲다문화교육 사례집 ▲한눈에 알아보는 국제예절 ▲내 친구 한국어1(일본어판, 영어판 2종) ▲내 친구 한국어2(일본어판, 영어판 2종) 등을 발간해 학교와 다문화 관련 기관 등에 보급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기금사업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시행되는 장애인복지기금 대상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단체 등이며,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치료·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사업 등이다.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제주도 및 행정시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재활의료장비보강 및 직업재활장비보강 등 총 37건에 1억8400만원이 지원됐다.

3자녀 이상 예방접종비 확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3자녀 이상 0세군과 1세군에 대해 병·의원에서 B형간염과 수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6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3자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자녀 이상 0세군 762명에 대해 병·의원에서 BCG와 B형간염 등 4종의 접종을 실시해 9000만원을 지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보건위생과(710-2936~8)나 지역보건소로 하면 된다.

헌혈 전 전염병·약물복용 여부 확인

복지부, 정보시스템 가동

보건복지가족부는 헌혈자가 전염병을 앓았거나 헌혈이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 30일부터 가동했다.

이에 따라 채혈기관들은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채혈금지 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와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화대상 전염병은 크로이츠펔트-야콥병, 인간광우병, 바

베시아증, B·C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등이며, 헌혈금지약물은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금지),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금지), 피나스테라이트(전립선비대증 치료제, 1개월 금지), 두타스테라이트(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금지),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제제(1년 금지) 등이다.

복지부는 또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복지협의회 2008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사용내역	금 액
재가결연후원	1,110,000	재가결연대상자후원	1,100,000
난치병환아후원	50,000	난치병환아후원	400,000
복지사업후원	4,267,000	복지사업후원	4,055,33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15)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웃이 하나되는 ‘사랑방’ 역할 톡톡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위치한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희경)은 사회복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6년 11월 설립됐다.



아동·노인·이주여성 등 대상복지서비스 다채 “타 지방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1만5000여명의 종합적인 사회복지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 또한 매우 알차다.

우선 가족복지사업으로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적 지원사업인 ‘I Love Jeju’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여가활동, 문화체험, 멘토링사업 등 자존감 향상을 위해 방임·위기아동 지원 사업 ‘이루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방과후 아카데미 ‘효학당’을 운영하

고 있으며,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안교실 위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사업으로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시락 배달, 요양방문서비스, 행복한 나들이) 및 경로밥상(매월 둘째·넷째 화요일), 한방진료, 이·미용서비스, 경제적 지원(결연 후원,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역사회 조직사업으로는 산학협약(재능대학)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진강좌 및 전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육문화사업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동제주문화대학(행복한 노년 보내기 특강, 서예, 댄스, 요가, 나들이 등)운영과 치매예방 프로그램(노인미술치료) 등이, ▲아동·청소년 기능교육으로 방학계절학교 및 동아리 활동(힙합, 밴드, 축구, 토피어리 등) 운영 ▲자활사업으로 재가어르신 방

문요양, ‘사랑찬 도시락’ 배달, 자활참여자 교육(직업훈련, 발마사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아동급식사업으로 475가구의 결식아동에게 점심(방학기간, 주말)을 지원하고, 30여가구의 아동에게는 아침과 저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 9월에 실시한 고령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한 ‘하늘 소풍 준비하기’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등 동제주복지관은 지역 내 3000여명의 노인을 비롯해 50여가구에 달하는 다문화가정과 아동·청소년 및 지역 주민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희경 관장은 “복지관이 노인은 물론 국제결혼을 해 구좌읍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 등 지역주민 누구나 와서 같이 어울려 얘기를 나누며 편히 쉴 수 있고,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짧은 시간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구좌읍사무소를 비롯해 다른 지방 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784-8281~2.

〈조순옥 명예기자〉

올해 복지에산 4382억… ‘체감형 복지’ 강화

작년 比 467억원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보건복지여성분야에 지난해 3915억원보다 467억원이 증가된 4382억원을 투입해 ‘체감형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은 도 전체예산 2조6962억원의 16.3%로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등 13개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분야별 투입 예산을 보면 기

초생활보장 부문 1222억원을 비롯해 장애인복지 425억원, 교육·가족·여성부문 1257억원, 노인·청소년 부문 1010억원, 보건 부문 277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보강이나 신·증축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고, 저소득층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일자리도 적극 창출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출산 전 진료비’ 우체국서도 신청 가능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출산 전 진료비를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부들의 편의를 위해 1월 29일부터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든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제공되는 출산 전 진료비는 이전까지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KB국민은행 지점이 없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진료비 신청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전국 2743개 우체국에서도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을 할 수 있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체국을 통해 발급된 e-바우처도 KB국민은행에서 발급된 e-바우처와 사용방법이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위기가정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휴·폐업자영업자에 생계비등지원

경제상황 악화로 휴·폐업 등에 의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긴급생계비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일시적 위기가정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면서 휴·폐업 신고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가구 중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 구성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50% 미만이면 최저생계비의 100%가, 50% 이상이면 최저생계비의 50%가 지원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올해 3억9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222가구 259명에게 생계·의료·장제비 등 3억4900만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문의=제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728-2472).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와 장애인 부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합동결혼식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합동결혼식은 다음달에 열린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양성

평등지원과(728-2573)에 신청하면 된다.

합동결혼 대상자에게는 결혼식에 필요한 신부 드레스를 빌려주고, 한복과 양복, 사진촬영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쌍에서 올해에는 20쌍으로 확대됐다.



“우리라서 더 행복해요”

오현중,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진행

오현중학교(교장 백광익)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월 12일부터 1월 24일까지 2주에 걸쳐 평화의 마을과 롯데호텔, 원광요양원 등지에서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복지·자원봉사·매너교육인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더불어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에게 부족한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강의를 제공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복지교육을 시작으로 웃음치료, 예절교육, 스피치교육, 풍선아트, 발마사지교육, 실버댄스교육과 교육 후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봉사캠프로 이뤄졌다.



△평화의 마을을 찾은 오현중학교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있다.

김진경 교육복지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 행복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애인들과 호흡하며,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통해 긍정적인 자기를 엿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사회복지교육과 스피치교육 그리고 풍선아트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해서 그런지 무작정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 더 보람차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장애 아픔 딛고 이웃사랑 실천

제주시내도동이명구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독지가가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주인공은 제주시 내도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명구씨(61).

이씨는 1월 20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해 달라며 10kg들이 쌀 100포(250만원 상당)를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내왔다.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건어물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32년전 첫 자식을 얻은 것을 계기로 이웃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씨는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육원 어린이 돕기 사랑의 구좌를 개설했으며, 외도동 관내 어려운 이웃 10가

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다 지원을 받던



가정이 소식도 없이 이사를 가면서 지원 가구가 줄어들자 행정기관을 통해 더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10kg들이 쌀 100포를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했는가 하면 연말에는 미화원에게 방한복을, 저소득 가정에 쌀을 기증하는 등 선행을 이어왔다.

이씨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교육은 선행을 통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것”이라며 “이런 마음이 자식은 물론 우리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소/식/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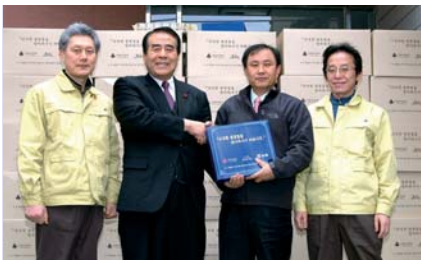
사랑하는 사람들 합창단 발표회



가톨릭의집과 제주애덕의집 생활인들로 구성된 '사랑하는 사람들' 합창단이 지난해 12월 24일 성가정노인복지센터에서 합창발표회를 개최했다.

합창단은 이번 공연에서 '고향의 봄'을 비롯해 8곡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가족들에게 선보여 뜨거운 박수를 받는 등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랑의 열매, 어려운 이웃에 위문품 등 지원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따뜻한 설 명절 사랑 나눔 사업'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2억 2000여만원 규모의 위문품과 차례상 비용 등을 지원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12월 생활·이용시설에 냉난방비보조사업으로 1억100여만원을,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성황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해 12월 23일 풍림리조트에서 자원봉사자와 후원인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자원봉사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 청소년들이 펼치는 드림공연과 뮤지컬공연, 직원 수화공연, 이야기 나눔의 순으로 진행돼 참가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귀포농협 작목반장협의회 감귤기탁



서귀포농협 작목반장협의회(회장 양재석)는 1월 15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해 달라며 10kg들이 감귤 150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감귤을 소망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창암재활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나눠줬다.

도자원봉사센터-모금회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1월 1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찬식)와 제주지역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사회모금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09 장애인정책설명회 개최



유진재활센터(시설장 최은미)는 1월 15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09년 장애인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립재활원 국은주 팀장이 재활원 이용방법 등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수안 팀장이 장애인 고용실태 및 현황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창암교육활동센터 차량 지원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인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광수)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난해 12월 23일 12인승 스탠덱스 차량을 지원받았다.

창암교육활동진흥센터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승마치료와 국궁활동 등 다양한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차량이 없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거침없이 하이킹

제주시립희망원은 삼다씨아클동우회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지난해 12월 9일 그루터기공동체 가족들과 하이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애월 해안도로(9.8km)를 달리면서 새로운 출발과 성공을 다짐했다.

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인터넷 · 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

“다양한 체육서비스제공 계획”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가 직접 병원이나 재활원 등을 찾아가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는 생활체육을 접하고 싶은 도내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체육회는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인터넷상담(www.jesad.co.kr)과 전화상담(1577-7976) 등을 통해 신청하면 상담→처방→현장접근→현장지도를 실시해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이 탁구, 풋살, 플라잉디스크, 테이블테니스, 수영 등의 종목을 지도하고 있으며, 8개 학교·기관에서 1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강성훈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팀장은 “장애인생활체육은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개별 장애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북돋아 줘 장애를 빨리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도내에 2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밖에 없다 보니 다양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전일제 및 시간제 생활체육 지도자를 늘려 다양한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경애 명예기자〉

장애인 눈높이 맞춘 직업재활서비스제공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공모한 2009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장복은 서귀포에서 유일하게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직업재활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서장복은 취업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자격증취득교육, 맞춤형 취업교육, 지역사회 내 사업체·학교·직업재활기관과의 협력 네

트워크 조직, 창업, 지원고용, 일반고용, 전문가양성, 장애인 고용인식캠페인 사업 등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전문적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업체와 고용협약을 체결,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바로 사업체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맞춤형 직업재활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서비스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돼 왔던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732-2352.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활동 하세요”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가족봉사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청 소년활동진흥센터(소장 허철수)가 ‘2009 청소년가족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7일까지이며, 9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소년가족봉사단으로 선정되면 오는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부터 월 1회 사회복지시설 정기봉사활동을 벌인다.

또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 ▲제4회 가족·제자사랑 한마음걷기대회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등의 가족봉사체험을 한다.

제주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알고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청소년가족봉사단을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31가족·144명이 활동하고 있다.

문의=751-5041~3.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숨은 일꾼과 아름다운 이야기 등을 알려 주시면 적극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도민 노후지킴이 역할 최선”

오장건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부와 풍요의 상징인 소의 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국제 금융위기는 금년 들어 더욱 더 세계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더 어렵고, 힘든 한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도기업이 증가하고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의 여파로 노후생활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연금보험료 징수기반의 약화가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20~30년이란 긴 노후를 포기하여 사회안정망이 붕괴되면서 급기야

는 사회적재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제주지사에서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섬기며, 국민연금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도민의 노후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일대일 상담과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절차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창구서비스를 혁신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제주지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섬마을 아이들 서울 나들이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루다 사업단은 제주공동모금회와 인터넷 자원봉사자단체 ‘행동하는 양심’의 후원을 받아 구좌읍 관내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섬마을 아이들의 서울 나들이-리더십 캠프’를 다녀왔다.

아동들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남산타워, 용산 우주체험관, 롯데월드 등을 관람하고, 전국 아동들이 참여하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주제의 연합캠프에 참가했다.

동제주복지관 관계자는 “이



번 나들이는 제주도내에서도 농·어촌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적 소외감을 갖는 구좌읍 아동들이 다른 지방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견문을 넓히며, 리더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지팡이 고무 패킹 수십년간 무료 교체

제주의료기상사 오창권 대표

보행보조기구 등을 판매하는 한 의료기기업체가 수십 년간 지팡이 고무부를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어 고마움을 사고 있다.

제주의료기상사(대표 오창권)는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지팡이 끝에 있는 고무 패킹을 1985년부터 20년 넘게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다.

오창권 대표는 노인들이 고무 패킹이 닳아 사용에 불편을 느껴도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모습을 보고 패킹 교체를 시작하게 됐다.

오 대표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고무 패킹을 교체하지 않으면 길을 걸다 넘어져 다칠 위험이 높다”면서 “노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또 수년전부터 경로당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지팡이를 선물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시 삼도2동에 위치한 제주의료기상사를 찾아가면 고무 패킹을 교체할 수 있다.

문의=722-3324.



사랑의 노래를 타고

7080가수 백혈병소아암 환아돕기 사랑의 음악회

1970·80년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7080 가수들이 제주의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제주지부와 제주사랑연합이 함께 마련한 제3회 백혈병소아암 환아돕기 사랑의 음악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제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렸다. 음악회에는 사랑과평화, 김동환, 정경화, 한영애, 소리새, 신계행, 추가열, 강승모 등 7080 정상급 가수들이 나서 주옥같은 노래를 들려줘 40~50대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는 파스한 사랑을 전했다.

홍만기 지부장은 “처음 음악회를 시작할 때는 도민들의 참여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벌써 3회가 됐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백혈병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수익금 전액은 백혈병 및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칼럼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 실현



고 병 두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 소년과장

IMF 구제금융 이후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내느냐가 우리도의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4382억 투자삶의질 향상주력

올해 우리 도의 복지정책은 서민생활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뒀 '행복과 감동을 드리는 건강복지사회'를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467억원(11.9%)이 증가된 43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민생안정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한 해는 선제적 위기대

응과 위기기구 보호를 위한 희망복지, 민생안정대책을 강력한 추진동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민생안정대책의 핵심과제로 종전 방문하는 민원상담 처리에서 먼저 찾아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저출산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출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고령화 속도를 완화시켜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완벽한 정착과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당당한 노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 번째, 무장애 시설 인증제와 장애인 편의시설 IT정보시스템 및 보이스아이 시스템 구축, 서비스 지원방식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 제주여성의 문화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제주종합문화센터를 10월에 완공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다 함께 행복한 성 평등사회를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감동제주재창조에 동참기대

마지막으로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제주재활전문센터 건립 본격화, 제주의료원 부지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의료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에도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민간부문의 참여와 후원이 동참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 도민들이 어떤 분들인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 함께 하는 수놓음정신이 있다.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도민 역량이 하나로 모일 때 우리 제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믿는다.

나눌수록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다. 도민들 모두가 나눔 천국, 제주를 통해 우리와 세상이 감동하는 제주를 재창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 본다.

시론

소외된 이웃들에 복지관광혜택을

복지관광이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관광에 참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를 제거하고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복지관광은 1975년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관광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 관광기본법 제정을 통해 시작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관광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관광기회를 부여·확대한다'는 구호만 내걸었을 뿐 실제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복지관광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7년 장애인 초청행사인 사랑의 관광단,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된 근로청소년 초청관광인 우정의 관광단을 시초로 2000년대 들어서 민간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문화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관광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혜택 등 기업 참여 방안 마련 필요

하지만 이러한 행사는 국민복지관광의 일환으로서 전 국민에게 관광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등의 전시적 효과는 있었으나 그 규모나 내용면의 확대 및 정기적인 형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복지관광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복지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 첫 번째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성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 등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관광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관광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관광향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관광시설의 접근성 향상, 관광시설내 자원들의 소외계층 서비스 실시,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 조치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원봉사자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소외계층의 관광 참여를 돕고 안내하며, 교육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저변확대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요금할인제도의 확대이다. 대부분의 관광지의 경우 장애인 할인, 노약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나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계층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계층에 대한 요금할인제도 등의 도입 등도 검토해볼만 하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복지관광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데, 선진국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예산편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복지관광기금을 마련하여 복지관광실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복지관광 시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제주도는 복지관광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메이킹은 물론 또 다른 관광동력으로 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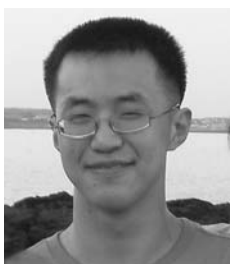


김 순 효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기고

일하고 있는 나를 보면 행복해요



홍 정 혁

저는 한라산업 세탁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홍정혁입니다. 나이는 스물 넷이고 취미는 책읽기와 컴퓨터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제가 한라산업에서 일하기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발달장애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 제주도장애인복지관에서 2년간 취업훈련을 받았습니다. 취업훈련이 끝나고 실습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라산업에 일했을 때 이제까지 취업훈련을 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너무 힘들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일을 잘 할 수 없었고 동료들과도 자주 다투습니

다. 하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일을 잘하고 있고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한라산업 세탁공장은 호텔 등에서 오는 이불이나 베개 등을 세탁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는 저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에는 간단한 것들을 하다가 점차 익숙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한라산업의 사장님과 사모님은 굉장히 친절하시고 바쁠 때에는 사모님이 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의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도 제가 하고 싶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다. 내가 엄마 속을 썩여서 엄마가 울면 마음이 아팠는데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냈습니다.

직업훈련을 시작하니 하지 말라는 것만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습을 여러

군데 나갔는데 처음은 레스토랑이었고, 그 다음은 세차장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할 때는 힘은 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너무 많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긴장하면 손도 떨리고 침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점점 그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실습만 마치고 취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차장에서 일을 할 때는 여름이었는데 밖에서 일을 해서 목 부분의 살갗이 햇볕에 타서 껍질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그때 엄마는 나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다 직업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한라산업에서 실습을 하게 됐고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편이지만 조금씩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도 처음보다 쉬워졌고 이제는 출·퇴근 등 모든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동정도 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가족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를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 열심히 일을 해서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기부품목 생활·위생용품까지 넓혀야”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대상 품목을 생활 및 위생용품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은 1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푸드뱅크 역할 강화를 위한 사업범위 재설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지난 10여년의 정착기간을 거쳐 푸드뱅크가 중요한 자선복지 시스템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푸드뱅크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국처럼 우리나라 푸드뱅크도 이제는 기부대상 품목을 식품에서 생활 및 위생용품까지 확대해 사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미국 등처럼 식품에 국한하지 말고 생활 및 위생용품까지 기부 받아 이용자에게 배분해주는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를 위해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긴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투명한 배분이 담보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라 할 수 있는 기부량이 충분해야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된다”면서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은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사회보건연구원 정기혜 실장 푸드뱅크 역할 강화... 주제발표 ●

식품기부 활성화 법률 개정 필요...세제 지원 폭 확대 주문
기술기부 도입 고려...투명한 배분 집행 우선돼야 지적

기업체도 계획생산을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재고품이 적은 형편에서는 기부업체 세제 지원 폭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모

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명절 등 특정일을 중심으로 기부되는 한시적 기부보다는 기부를 생활화하는 기부문화 정착으로 기부량의 확대와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마련과 기부에 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실장은 프랑스 푸드뱅크를 예로 들며 “제빵사가 일정한 기간 푸드뱅크에 빵을 만들어 주거나 홍보전문가가 기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자료, 이벤트 등을 기획해 주는 등의 기술기부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푸드뱅크에 기부된 기부품에 의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 사업의 성패는 기부품의 안전성 확보에 달려있다”면서 “상온제품은 유통기한 경과여부 등 주의가 필요하고, 냉동냉장차량과 더불어 완벽한 저온유통시스템이 완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푸드뱅크 운영자는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배분하고, 선

별할 수 있는 식견이 필수적이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에 비해 미흡한 국가차원의 기부자 혜택 방안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공공휴양지 및 시설사용기회 제공과 기부실적 누적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회자로 나선 정부성 송실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푸드뱅크는 기부물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성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나 다양한 푸드뱅크 운영주체로 인해 지역에 따라 푸드뱅크 관련 업무가 중복되는 등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민간의 자율성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푸드뱅크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원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품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나 유가증권 등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현금기부 등을 허용해 기

부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생래 부산광역푸드뱅크장은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운영재원, 장비의 3가지 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정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푸드뱅크 운영기관에서는 자체 자원개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정 CJ 나눔재단 사무국장은 “기부자 입장에서 푸드뱅크를 통해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는지, 또 어떤 계층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또 실제 식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한 경우가 많다”면서 “푸드뱅크 배분 현황, 이용자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기부자에게 제공하고, 각각의 이용실적에 대한 누적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개인들이 좀 더 많이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배분 집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자신들이 기부한 제품이 어느 지역,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알기 힘든 상황에서는 푸드뱅크의 확산은 요원하다”고 역설했다.

허 국장은 또 “인력의 잦은 교체는 푸드뱅크가 10년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노후를 습득하기 어려운 원인”이라면서 “업무량에 맞는 적정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70

세계로 수출되는

건강한 물, 안전한 물, 맛있는 물 제주삼다수

산화력이 제일 낮다!
산화환원전위(ORP)가 제일 낮다!
물 맛을 나타내는 O-INDEX가 제일 높다!



먹는물 PET시장 점유율
제품 고객 만족도
고 객 선호도

1위

제주 **삼다수** 택배상품

제주삼다수감귤주스, 제주삼다수녹차, 감귤초콜릿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종류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문 및 상담 (064) 780-3405~9 <http://www.jpdc.co.kr>